

비뇨기과 전문의 정처영의
술직, 대담한 性

사라졌나 했던 '사면발이' 조금씩 증가

직장에 다니는 40대 초반의 김수찬(가명)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던 음모가 팬스레 자주 가렵고 밤에 잘 무렵 심하게 단순히 '습진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중에, 자신의 부인도 외음부 쪽을 자주 긁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사면발이, '이' 같은 기생충

부인까지 그러자 이상히 여긴 김씨는 음모를 자세히 살펴보고, 뭔가가 기어 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사면발이'였다.

김씨는 부인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사면발이가 주로 성관계로 전파되는 것을 몰라 알고 있던 터라 부인은 남편을 강하게 의심했고, 격백한 김씨도 부인을 추궁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하

게 여러 차례 부부싸움이 오갔고 마침내 둘은 병원에 내원했다.

먼저 김씨를 진찰해보고 여러 정황을 들은 바 실제로 외도는 없었던 걸로 판단되었고 부인 또한 눈을 치켜 올리며 남편을 쏘아 붙이는 상황으로 볼 때 부인의 문제는 없어 보였다.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지던 차에 김씨가 평소 사우나 등을 자주 다닌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사면발이에 감염 될 만한 단서를 포착했다. 수 일전 사우나에서 샤워를 마치고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옆에 놓여있던 수건으로 알몸을 덮고 한 두 시간 눈을 붙였다는 것이다. 영검결에 원인 환자의 의무를 지게 된 나는 이 사건을 대중강소에서 옮겨진 사면발이로 진단하고, 부부의 무혐의(?)를 밝혀냈다.

대부분의 성병은 콘돔으로 거의 예방되지만

사면발이·곤지름·헤르페스 등은 콘돔을 착용하더라도 감염될 수 있다. 더욱이 사면발이는 사체처럼 직접적인 성 접촉이 없어도 드물게 옮겨질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환경이 좋지 않은 여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곳의 감염된 의복이나 수건 등으로 전염이 가능하다.

확대해서 보면 생김새가 흡사 '개'와도 비슷한 사면발이는 머릿니와 같은 '이' 기생충이지만, 머릿니와 전혀 다르게 대부분 음모에 기생하여 산다. 주둥이를 빨대처럼 살 속에 파묻고 피를 빨아 배를 채우며, 알(사캐)을 낳아 음모에 붙여놓는다.

이러한 자극으로 인해 음모가 심하게 가렵고 특히 잠에 들 무렵 상당한 소양증을 느끼게 된다. 가려워 긁는 동안 2차적인 세균감염이나 피

부발진이 생길 수도 있다.

부부사이를 증대하여 오해를 풀게 한 후 부부에게 사면발이를 사멸시키는 크림을 처방하여 2-3번 정도 시일을 두고 음모와 그 주위의 피부에 바를 것을 당부했고, 집의 의복과 이불 등을 삶아 햇볕에 말리도록 권유했다.

타인과의 성 접촉 피하라

20여년 전만해도 머릿니가 상당히 많았다. 당시엔 발다른 약이 없어 할머니가 집에 있던 참빗으로 머리를 빗겨주고, 떨어진 '이'를 손톱으로 눌러 '따라'하는 소리를 즐기며 잡았던 기억이 스친다.

요새 진로하다 보면 최근 뜸했던 머릿니나 사면발이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다.

예방을 위해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수건이나 의복, 지저분한 여관에서의 침구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무엇보다 타인과의 성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테마필 피부비뇨기과 원장>



57. '미번호이'로 불리는 이 선수가 25일 오후 주 멜버른에서 펼쳐진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3분44초3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수영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 ① 박태환 ② 강홍환 ③ 이안 소프 ④ 그랜트 하켓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과호텔 숙박권 1박을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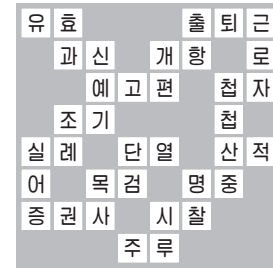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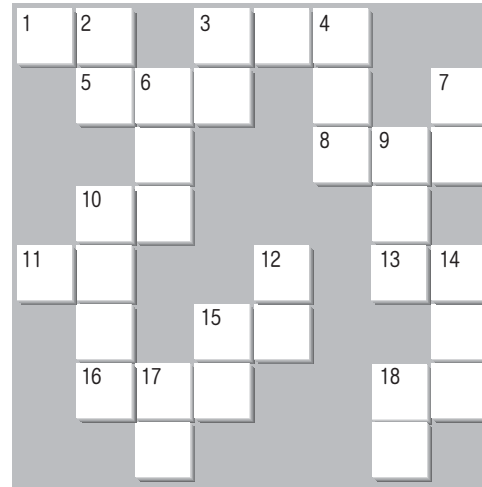
→ 가로풀이

- 1. 풀, 쪼 또는 가족의 배설물 등을 썩힌 거름.→ 두엄. 3.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위 상급학교에 진학해 다니는 학생. 5. 코 속(부비강)에 고름이 끼는 병. 두통이 나고 때로는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흐르기도 한다. 8. 대형 할인점이나 상점 등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들의 가격을 할인하는 곳. 이 곳에서 소비자는 물건 값을 치른다. 10. 적이 점령하거나 차지하고 있는 땅. ~에 침투하다. 11.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글이나 만화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계속하여 실는 일. 그는 그동안 신문에 ~한 글을 모아서 책을 냈다. 13.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직무 ~. 15. 어린 나이냐 때. 또는 어린 나이의 아이. 아련히 떠오르는 ~ 시절의 추억.

- 16. 사람들이 상품이나 물건, 시간 등을 써서 없애는 양. 연간 매출 ~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18. 동물의 겉가죽. ~내피.

↓ 세로풀이

- 2.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갖추어 모아 두거나 저축함. 군사 작전에서는 군량미의 ~이 중요하다. 3. 아주 위중한 병의 증세. 이 병동은 ~한 환자들만 입원하고 있는 곳이다.→경중. 4. 운동경기 등의 실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송.→생방송. 이제부터 서울국제마라톤경기를 ~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 농사짓는 데 쓰는 땅.→농지·농토. 7. 아버지, 아들, 손자의 세 대. 그의 직업은 ~를 걸쳐 이어온 것이다. 9. 폭우나 지진, 화산 등으로 산 중턱의 바윗돌이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 이번 폭우



<함께 풀어봅시다 243회 정답>

이 동동함. ~ 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18. 외국의 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난주 정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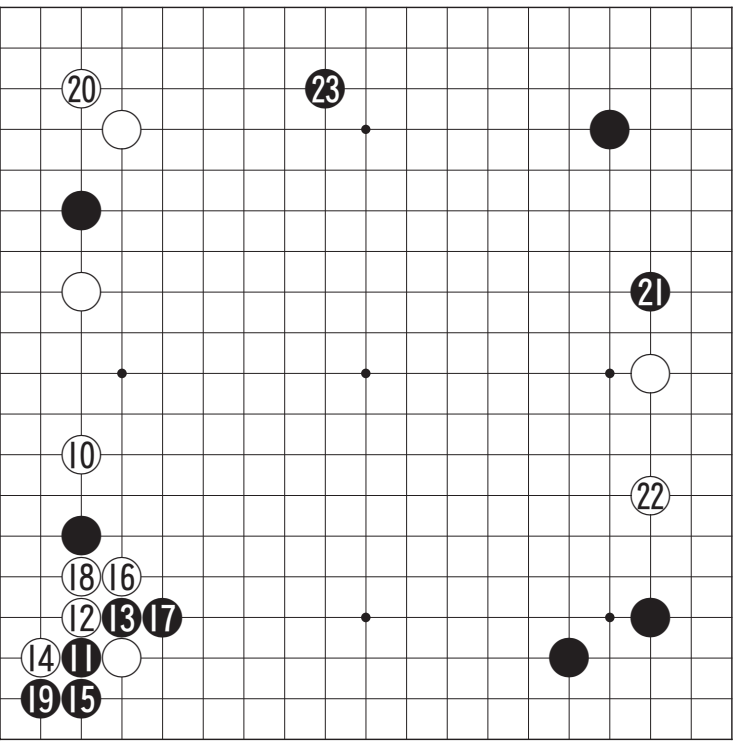
장병국·광주시 북구 두암동 김하중·광주시 서구 금호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 로 인해 학교 뒷산에서 ~가 발생했다. 10. 앞말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씌. ~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인사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12. 한 해 한 해. 또는 해마다. 우리 학교는 ~ 12월에 송년 음악회를 연다. 14. 만두의 거죽이 되는 밀가루 반죽의 얇은 반대기. 15. 기름 등 유체가 흐르는 양. 17. 살이 썩서 물



제1기 SK가스비 프로10결전 춘추전국시대 2보(10~23)
白 이재용 5단 黑 김수용 초단



이재용 4단이 제 50기 국수전에서 넘을 수 없는 산으로 보이던 이창호를 3대 1로 꺾고 타이틀을 차지했다. 조한승의 천원전 우승과 안조영의 원익배 10단전 우승에 이어 4인방 이외의 기사가 다시 중요 타이틀을 제패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윤준상의 국수전 우승으로 국내 바둑계는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가 도래, 신예들의 거센 정상도전이 이

바둑소식

윤준상 5단 BC카드배 4강 진출

윤준상 5단이 신인왕에 바짝 다가섰다. 윤준상 5단은 지난 23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 17기 비씨카드배 신인왕전 8강전에서 이영구 6단을 누르고 4강에 올랐다.

윤 5단의 4강 상대는 원성진 7단. 역대전적은 5승 3패로 윤준상 5단이 앞서지만 2005년 이후는 3승 2패로 원성진 7단이 우세하다.

비씨카드배 신인왕전은 연령에 상관없이 프로입단 후 만 10년 이내의 기사에게 출전권이 주어지며, 제한시간 10분 40초 초읽기 3회다. 본선은 총 24명이 토너먼트로 결승 진출자를 가려 3번기로 우승을 결정한다. 우승상금은 2천 500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

굿모닝 잉글리쉬 <868>

l'll see what I can do
노력해 보겠습니다
A: Mary, you owe me twenty dollars.
B: sorry, I can't come up with it.
A: You'd better have it by Sat.
B: I'll see what I can do.
A: 메리, 당신 내게 20달러 빚졌어요
B: 죄송해요, 지금 돈이 없는데요.
A: 토요일 까지 갚도록 하세요.
B: 노력해 보겠습니다.
owe : 빚지다
come up with ~ = obtain
You'd better ~ : ~하도록 하세요
Sat = Saturday
I can't come up with it.
= I don't have it.

오하오우 니혼고 <868>

おしほりをもらえますか
물수건 좀 주시겠어요
A: お飯(のみ)み物(もの)はどうなさいですか。
B: とりあえず、生(なま)ビルを二(ふた)つください。
A: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
B: それから、おしほりをもらえますか。
A: 음료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B: 우선, 생맥주 2잔 주세요.
A: 네, 잘 알겠습니다.
B: 그리고, 물수건 좀 주시겠어요?
おしほり: 물수건
飯(のみ)み物(もの): 음료수
それから: 그리고

니하오 쑹구위 <59>

我去參加晚會
저녁 파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A: 你去參加晚會了。
Zuóqù cānjiā wǎnhuì le.
주어당晚會스구안 귀성 완생은: 너.
B: 是呀, 我沒去參加晚會。
Shì de, wǒ méi qù cānjiā wǎnhuì.
스 데, 완 생은: 晚會晚會 완생완생.
A: 為什麼?
Wéishénme?
왜 그런지?
B: 因為工作太忙, 沒時間去參加晚會。
Yīnwéi gōngzuò tài máng, méi shíjiān qù cānjiā wǎnhuì.
안생은: 太忙, 스구데 晚會晚會 완생완생.
A: 晚會 什麼 晚會晚會에서 晚會 什麼晚會? 晚會晚會.
B: 對, 我是 什麼 晚會晚會.
A: 晚?
B: 晚會 什麼 晚會晚會, 什麼 晚會晚會.
大樓閣 [dàshànguān] 대서관
晚會 [wǎnhuì] 저녁 파티
晚會... 晚會... [wǎnhuì... wǎnhuì...] 晚나晚만... 그래서...

한자 이야기 <486>

池魚之殃 (지어지앙)
연못 지, 물고기 어, 어조사 지, 재앙 앙
지어지앙(池魚之殃)은 '연못 속 물고기의 재앙'이라는 뜻으로 화가 엉뚱한 곳에 미치거나 상관없는 일로 재난이 휩쓸려 들을 비유하는 말이다.
춘추시대 송(宋)나라에 사마(司馬·대신) 벼슬을 지내는 환희(桓熙)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공자를 죽이려고 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천하에 돌도 없는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죄를 지어 처벌을 받게 되자, 보석을 가지고 종적을 감춰 버렸다. 보석에 욕심이 생긴 왕이 측근 환관에게 속히 환희를 찾아내어 보석 감춰 둔 곳을 알아보게 하였다.
환관이 보석 감춘 곳을 알기 위해 그를 고문하자, 환희는 자신이 도망칠 때 궁궐 앞 연못에 보석을 던져버렸다고 자백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당장 신하에게 그물로 연못 바닥을 훑어보게 하였다. 그러나 보석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연못의 물을 다 쳐낸 다음 바닥을 샅샅이 뒤졌으나 보석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연못의 물을 퍼 없애는 바람에 결국 깨끗은 물고기들만 다 말라죽고 말았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환희 때문에 애꿎게 연못의 물고기들이 재앙을 당했다(池魚之殃)고 가슴 아파했다.

더마플라스트 밴드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타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